

1400년전 백제로의 시간여행

백제왕궁인 왕궁리유적에서 1,400년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2022 익산 문화재야행(夜行)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왕궁에 나타난 백제무왕'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2년 익산 문화재야행은 다채로운 전시·공연과 다양한 포토존, 익산 문화재야행에서 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등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올해는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시민단체가 협업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며 왕궁, 무왕 문화유산, 고즈넉한, 휴식과 같이 익산 문화재야행을 대표하는 테마들을 행사장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행사장 초입인 백제왕궁에서는 지역산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플라멩코와 먹거리, 포토존, 무형문화재의 공연이 방문객의 흥을 돋구기 시

익산 문화재야행, 12~14일 왕궁리유적서

공연·전시·이색 체험 등 프로그램 '풍성'

작한다. 광장을 지나면 백제왕궁박물관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6월 리뉴얼된 백제왕궁 박물관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백제왕궁을 복원한 가상 체험관 발굴체험실, 어린이 디지털체험실 등을 갖춘 어린이 친화형 스마트 체험 역사박물관으로 거듭났다.

또한 박물관 외벽을 활용하여 미디어아트쇼가 상시상영될 예정이며, 2022 익산 문화재야행 기간에 한해 박물관 옥상이 개방돼 '백제왕궁 야경'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물관을 나와 우측으로 가면 드디어 1,400년 전 무왕이 건설한 백제왕궁이 본격적으로 방

문객을 맞이한다. 올해는 백제 최고의 건축기술을 사용해 광활하게 조성된 백제왕궁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웠다. 각 구각마다 세워진 화려한 포토존 해설, 전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며 걸다보면, 어느새 광활한 백제왕궁에 매료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탐리마루에는 번사극, 생활문화동호회 버스킹이 진행되는 탐리극장, 가훈서주기 및 서예체험을 진행하는 백제서예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백제왕궁에서 개최되는 2022 익산 문화재야행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익산만의 시민참여형 문



화유산 행사"라며 "앞차에 준비한 2022 익산 문화재야행에서 한여름밤의 낭만적인 백제왕궁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서학예술극장 오시면 기획공연이 '공짜'

내일 '남사당흥부전' 등 총 4번 진행... 무료 관람

서학예술극장(대표 이여송)은 12일 '남사당 흥부전'을 시작으로 19일 '현 위의 여행', 26일 '메고동남감성으로 푸는 우리음악', 9월 3일 '보고웃까지 총 4번의 기획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2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들이 접하기 쉬운 도내 민간 문화시설을 활용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소 1인 1억 원으로 올해는 총 7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 단체는 사업 기간 중 최소 4번의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한편, 전주시 서서학동에 위치한 서학예술극장은 전통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가들이 관객과 함께 소극장 생생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여송 대표는 "작년 소극장 참관을 통해 처음 선보인 소리극단 도재비의 '삼국사기'가 광주 국악 상설 공연에 선정되고, 올해 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서학예술극장은 기획 프로그램을 통한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단과 서학예술극장, 아티스트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든 공연은 서학예술극장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으며, 예매 및 공연 관련 문의는 전화(063-231-8881)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오늘부터 이틀간 정기공연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12일 저녁 7시 30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제28회 정기연주회 가족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으로 시민들을 중심의 세계로 초대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의 친구 '피터팬'을 소재로 한 안무·합창 연기를 접목한 합창 뮤지컬로, 국내 대표 합창뮤지컬 전문가인 김성강 감독의 연출 및 지휘 아래 합창단원들이 각각의 배역을 맡아 열연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8월 11일 2회차 공연은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하루 만에 전 회차 60석의 좌석이 모두 매진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8월 12일 추가 공연을 결정한 것으로 현재 500석이 예약되었으며, 예약 잔여분에 대해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 발권도 가능하고 공연 3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9 재확산 상황에서 방역대책으로, 출연진 등 모든 스태프는 공연당일 자가격리 검사 후 무감염 확인자만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공연장 입구에 발열체크기를 설치해 고열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스릴러페스티벌' 성료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2022 스릴러 페스티벌 K컴퍼리 온다'를 지난 6일 오후 8시 군산근대건축관 뒤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시민예술촌의 문화예술거리사업인 '스릴러 페스티벌'은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군산시 거리에서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2년간 대폭 축소해 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진행했다. 올해에는 거리투기 원화로 다시금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하게 됐다. /군산=김관근 기자

'혼불' 속 견훤 이야기 영상으로

최명희문학관, 견훤 소재 창작동화 2편 제작 유튜브 공개

최명희문학관이 소설 '혼불' 속 후백제와 견훤 이야기를 영상물로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물은 창작동화 '백제인 마루'와 소설낭독 '혼불 속 견훤대왕 이야기' 두 편이다.

이에 따르면 '백제인 마루'는 '견훤은 왜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했을까, 왜 전주를 도읍으로 정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했다.

원고지 30장 분량으로, 견훤이 전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주에 후백제 도읍을 세울 결

심을 하게 된 일화를 상상해서 썼다. 작품 속 배경은 892년부터 900년까지 완산주(현 전주)의 전주천과 조록비유다. 또한 소설낭독 '혼불 속 견훤대왕 이야기'는 혼불 제8권과 제10권에 나오는 견훤과 후백제 부분을 열두 개의 주제로 구분해 엮었다.

최명희문학관 관계자는 "영상물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인 소설 '혼불'을 바탕으로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제작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동화 창작은 서성자·김근혜 작가가 맡았으며, 연극인 이도현·임갑정 배우가 목소리를 입혔다. 그림은 이필수 화가가, 김연옥·전선미·윤승기 씨가 영상 촬영과 편집을 책임졌다.

최기우 관장은 "영상물로 제작된 소설의 문장들이 초·중·고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에서 다양하게 활용돼 소설 '혼불'의 가



치를 새롭게 일리는 것 뿐만 아니라 후백제와 견훤의 바른 역사를 생각하고, 전라도 사람들의 기백과 예술인들의 힘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명희문학관에서 제작한 이 영상물은 문화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최명희문학관 마음자리'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흑과 백·빛과 그림자의 대비

전주공예품전시관 특별기획전 '흑백전'... 내달 18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은 9월 18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한국문화재단과 함께 '흑백(黑白)전'이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공예품 은행제 작품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 뿐 아니라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작품을 포함 총 32점이 전시된다.

전시 참여 작가와 작품은 △자일 보유자 정춘모 장인의 '통영 흑대립' △나주의 셋골나이 보유자 (故)노진남 장인의 '무명배'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장인의 '분청사기 호랑이 문호' 등으로, 한 평생 전통의 맥을 이어온 무형문화재 장인과 이수자, 전승교육사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전통 공예 작품의 색에 주목해 각 작품이 지닌 고유의 흑색과 백색,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형태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양반의 위엄과 몸가짐을 상징하는 검정색 '흑립', 단아하고 청아한 복식의 극치로 우리 민족이 선호한 백색의 직물 '백모시', 순백색의 바탕을 위에 투명한 유약을 써온 '백자 달항아리' 등 관람객에게 작품의 명암을 부각시켜 오롯이 공예품의 형태와 기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전시장 곳곳에는 작품 사진을 비롯한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이 송출된다. 영상은 축원된



126호 선자장 김동식 '합죽선'

장인의 기술과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전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람은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또는 '흑백전'을 검색하면 온라인 전시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김선재 원장은 "작품이 가진 색과 형태의 어우러짐에 집중해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흑과 백,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전시를 통해 이색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은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도민들의 여유로운 문화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태권도 콘텐츠, 우리 아이디어로

태권도진흥재단, 공모 시상식 갖고 수상자 4명에 상금·상장 수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오환, 이하 재단)은 10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태권도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 4명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태권도에 관심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한 태권도원(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태권도원의 시설과 장비를 기반으로 태권도인들에게 제공되는 전문 교육·연수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 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현주 현 초등학교 교사는 "체육 정규 교과 내 태권 1장 교육을 위해 자료를 찾던 중 태권도원을 알게 되었고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에서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국기인 태권도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지원하게 됐다"며 "첫 태권도 수업을 함께 했던 학교 제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오환 이사장은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는 필수"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더 많은 태권도 콘텐츠 확보를 통해 태권도원에서 더 풍성하고 알찬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예술회관, '범죄도시2' 무료 상영

부안군은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오는 18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하루 2회에 걸쳐 영화 '범죄도시2'를 무료로 상영한다.

범죄도시2는 개봉을 앞두고 132개국 선관제 확정을 알리며 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누적관객수 1269만명을 기록하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무려 3년 만에 나온 천만 영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 역대 흥행 13위, 한국영화 중 9위에 랭크되는 등의 기록을 수립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15세 이상 선착순 입장이며, 공연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추억을 잇다... 남원시, '한복 리폼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과 한복문화를 연계한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하나로 한복 리폼프로그램(한복의 기억 새로운 무한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추억이 담긴 한복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반려동물 한복 △자라차마 △순복귀우치 △카드지갑 중 1가지 품목을 선택해 리폼전문가와 함께 디자인을 결정하고, 리폼전문가의 사전 작업을 거쳐 신청자가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폼 링크(웹포스터 상단의 QR코드 스캔으로 접속 가능) 또는 화인당 블로그(https://blog.naver.com/ramwon_hwandang)를 통해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임인화 관광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번 리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입고 보는 한복에서 나아가 한복을 매개로 추억과 세대를 이어주고, 한복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